

UK-Korea Literature Exchange Programme 2013

2013

한-영

참여 문학·출판 기획자

김서정, 여지인, 안현미, 이정화, 원미선, 조은정

문학·출판

기획자

교류 프로그램

자료집

2013 한-영 문학·출판 기획자 교류 프로그램 자료집

UK-Korea Literature Exchange Programme 2013

문학은 모든 예술 장르의 기초이지만 그 동안 언어의 한계로 인해 국제적 교류가 타 장르에 비해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문학의 번역·출판이 활성화되면서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과 맞물려 세계 3대 도서전 중 하나인 영국 런던도서전의 2014년도 주빈국으로 선정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 계기를 활용하여 문학·출판 분야 기획자 교류 프로그램을 영국문화원과 공동으로 기획하였습니다. 한국 참가자들은 런던·에든버러·노르위치의 문학진흥·축제기획·독자개발 기관과 독립 출판사를 방문해 한국 문학·출판 발전의 자양분이 될 각 기관의 전략방향과 사례, 시사점 등을 얻어왔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여섯 분의 기획자는 적극적인 관심으로 방문 기관과의 교류 사업을 고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 한국의 문학창작공간, 문학진흥기관, 출판사, 문학축제의 국제 교류사업의 기획이 더욱 풍성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4년도 4월의 런던도서전에서는 ‘오늘의 작가’로 선정된 황선미 작가를 비롯한 10여명의 한국 작가들이 한국문학을 알리기 위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한국문학이 세계에 더 알려지고 영국과의 문학·출판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양국 예술가들의 안정적인 교류 채널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교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영국문화원과 현지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나가실 기획자 여섯 분에게도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문학·출판 기획자들의 영국 방문 프로그램 자료집을 소개하게 되어 서 무척 기쁩니다.

영국의 출판 산업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매우 활발하게 세계 곳곳의 다른 출판 업계와 긴밀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과 영국의 문학·출판계의 여러 가지 면모를 살펴볼 기회를 마련하여, 양국 전문가들이 작가와 출판사에 영향을 미치는 최신 출판 경향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더 많은 독자층을 양성하는 문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로 인한 저작권 이슈, 종이책의 미래와 같은 중요한 주제에 관해 양국 전문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2014년 런던도서전의 주빈국입니다. 영국문화원은 이번 교류 프로그램의 협력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하여 런던도서전의 문화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한국의 협력기관과 영국의 출판업계를 대표하는 여러 기관과 함께 일할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양국 전문가들의 이번 교류가 서로의 문학·출판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 들어가는 말

주한영국문화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양국 문화 교류 촉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이 주빈국으로 선정된 2014년 런던도서전을 전후하여 양국 문학 교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즐거운 책 읽기 세미나, 영국 작가 초청 행사, 한-영 문학·출판 기획자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여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과 영국의 문학·출판 기획자 및 작가들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중 한-영 문학·출판 기획자 교류 프로그램은 지난 2013년 11월에 5일 동안 선발된 여섯 명의 문학·출판 기획자들과 함께 영국 3개 도시에서 문학과 출판 진흥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러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자료집은 그 여정을 좀 더 많은 분과 공유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여섯 명의 전문가는 서로 일하고 있는 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국제 교류에 다양한 경험과 높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런던, 에든버러, 노르위치의 기금 기구, 독서진흥기구, 출판사, 작가 레지던시 기관, 문학 페스티벌 등 다양한 관련 기관 방문 및 영국 관계자들과 만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도시별 방문 기관 소개는 자료집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전문가들의 프로그램 참여 후기는 개별 작성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편집을 거쳐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 돌아와서 진행한 워크숍에서 참가자들과 나누었던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와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 역시 본 자료집의 '더 많은 교류를 위하여: 참여 기획자들의 대화' 부분에 수록하였습니다.

한-영 문학·출판 기획자 교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양국의 문학 교류가 더욱 깊어지고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본 자료집도 시간이 갈수록 값진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So Many Ways to Begin: 즐거운 독서 공동체를 향한 영국의 다양한 시도들

원미선  
프리랜서 문학 편집자

에든버러 시내 한복판에는 거대한 기념비가 있다. 그 정도의 기념비라면 역대 어느 왕이나 전쟁영웅을 위해 세웠을 법하다. 하지만 에든버러의 높다란 기념비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사랑하는 작가 월터 스콧(Sir Walter Scott)에게 헌정된 것이다. 그리고 보면 에든버러는 조앤 K. 롤링이 20세기 마지막 밀리언셀러 «해리포터»를 낳은 도시로 새삼 유명세를 타기 전에도 이미 제임스 매튜 배리,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코난 도일 등,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들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알려진 유서 깊은 문학 도시였다. 그에 걸맞게 에든버러는 해마다 책의 축제가 열리는 도시다. 2008년에 25주년을 맞았던 '에든버러 국제 도서 축제(Edinburgh International Book Festival)'는 이제 18일 동안 약 700개의 이벤트가 열리고 전 세계에서 평균 800여 명의 작가들과 2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다녀가는 세계적 규모의 축제가 되었다고 한다. 에든버러는 유네스코가 최초로 '문학의 도시'로 선정한 곳이기도 하다.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도서관을 비롯해 아직도 140개의 크고 작은 도서관이 살아 있고, 시내 중심가에 45개의 서점들이 저마다 전통을 지키고 있는 도시 에든버러에서 2013년 영국 출판 및 독서 문화 스타디는 시작되었다.

유네스코 문학도시 에든버러 트러스트(Edinburgh UNESCO City of Literature Trust)의 앨리 보우든(Ali Bowden) 대표는 과거에서 물려받은 문학의 유산들을 어떻게 현재화하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누구든 읽고 쓰는 활동의 참여자가 될 수 있고(Participation), 문학을 통해 배우며(Learning), 어디서든 훌륭한 문학작품을 접할 수 있고(Accessibility), 그것을 통해 얻은 창조적 생각(Creativity)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믿음을 동시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그 일은 '생각이 있으면 문학을 찾아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고압적 태도를 버리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관들이 뜻을 모아 문학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 어디로든 나서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그녀의 말에 진심으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런 시도의 하나로 에든버러에서 2010년에 기획했었다는 '시를 가지고 다녀요(Carry a Poem)'는 언젠가 서울에서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의 한 구절이 인쇄된 다양한 카드를 에든버러 시민 수천 명에게 나누어 주었던 이벤트였는데 보우든 씨는 올해 우연히 어떤 사람의 지갑에서 지금까

지도 고이 간직되고 있는 '시'와 재회한 순간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 편의 시와 소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은 거창한 기획이 아니라 이처럼 진심이 담긴 작은 움직임들에 의해 가능한 일이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에 누구든 어디서나 책과 문학을 가까이 접하게 하려는 세심한 노력이 결국 행복한 독자를 만들어갈 것이다.

스코틀랜드 북 트러스트(Scottish Book Trust)의 마크 램버트(Mark Lambert) 대표는 연간 주요사업으로 임신부들에게 태어날 아이의 독서지도를 위한 사전교육을 제공하는 것,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독서 가능성이 낮은 가정에 독서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 청소년들의 글쓰기 지도, 신인작가들의 창작 지원, 성인들을 위한 글쓰기 경연 등을 들었다. 학교와 도서관과 작가들을 서로 생산적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연간 400여 명의 작가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지원을 받은 작가가 성공한 뒤 스코틀랜드 북 트러스트를 다시 지원하거나 기부한 사례도 있는가, 라고 묻자 그는 조앤 K. 롤링도 한때 그곳의 지원을 받는 작가였지만 성공한 뒤에 기부금을 보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북 트러스트의 의무는 지원이 필요한 작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일 뿐 작가들의 지적 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렇다. 가시적인 성과를 촉구하는 후원은 후원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좇는 투자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문화진흥정책의 목표라면 사회 구성원들이 건전한 문화적 소양을 갖추도록 돕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 나름의 방식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공동의 사회적 삶은 더 풍요롭고 다채로워질 것이며 그 가운데 구성원들이 폭넓게 공감하고 미래를 위해 함께 구축해갈 가치들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스토리텔링 센터의 대니얼 애버크롬비(Daniel Abercrombie) 프로그램 매니저가 스토리텔링만이 갖는 고유한 현장성에 대해 들려줄 때에는 인간이 얼마나 '공감'에 목말라 하는 존재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그는 '눈에서 눈으로, 생각에서 생각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eye to eye, mind to mind, heart to heart)' 현장에서 전해지는 한 이야기가 남기는 감동의 힘은 때때로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말했다. '나'에게서 '너'로 전해지며

살아서 스스로 변화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누군가의 표정, 목소리와 숨소리로 하나의 이야기를 만나는 것은 분명 색다른 문학적 체험일 것이다. 현재 150명의 스토리텔러가 활동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교육 워크숍을 통해 스토리텔러 양성 매뉴얼도 업데이트되어가고 있다는 그곳의 미래가 벌써 궁금하다.

런던에서 이어진 여러 세미나에서도 영국의 문화 기획자들이 미래의 독서 공동체에 대해 품은 단단한 희망과 확신을 엿볼 수 있었다. 그들의 작업에 밑바탕이 되고 있는 신념은 '훌륭한 예술과 문화를 모두에게(Great Art and Culture for Everyone)'이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작품들을 향유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그들의 '업무'였다. 정보와 창의력을 쌓을 기회를 모두에게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영국 공공도서관(이동도서관 포함)의 운영이념도 그와 상통한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모토 삼아 그들은 양질의 독서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었다.

시 퍼포먼스와 낭독회를 기획하는 애플스 앤 스네이크(Apples&Snakes)의 루시 크럼튼 라이드(Lucy Cromton-Reid) 대표는 글로부터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글을 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일의 필요성에 대해 들려주었다. 시의 창작과 낭독, 독서경험이 감옥의 수감자들이나 병상의 환자들에게 가져다주는 긍정적 치유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들도 이미 발표되어 있다고 한다. 신체적 핸디캡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영국 성인들 6명 가운데 1명은 책을 읽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통계를 볼 때 퀵 리드(Quick Read) 같은 단체가 가독성이 높은 편집방식으로 책을 펴내고 있는 시도 또한 독서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독서 공동체 안으로 다시 끌어오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누구든 자기에게 필요한 책을 찾아서 읽을 기회를 고르게 누려야 한다는 철학에서 출발한 문화행정정책들이 한국에서도 더 다양하게 펼쳐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브라이언 대학 부설기관인 'C21: 21세기 글쓰기 연구 센터(C21: Centre for Research in Twenty-First Century Writings)'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출판 및 글쓰기 환경에 대해 연구하며 그것을 둘러싼 가능한 혁신들을 모색하는 기관이었다. 그 분야에서 유일한 학술잡지 <21세기 글쓰기 저널(C21 Literature: Journal of 21st Century Writings)>도 펴내고 있는데,

그곳의 디렉터인 케이티 쇼(Katy Shaw) 박사는 독자, 작가, 출판사, 학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만나 자유롭게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토론할 수 있는 심포지엄도 1년에 한 차례 열고 있다고 했다. '문학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우리는 문학에게 무엇을 가져다줄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놓고 독자와 작가와 학자들이 격의 없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 다양한 책들이 공존하는 성숙한 독서환경을 마련해 가는 일은 책을 쓰고, 책을 만들고, 책을 읽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작가가 독자의 욕구에 다가가고, 독자가 작가의 의도에 다가서는 경험이 두터워지면 쓰기와 읽기의 상호 확산으로 이어지기도 할 것이다.

'글쓰기 산업(Writing Industry)'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들려주었던, 버밍엄 문학 축제(Birmingham Literature Festival)의 조너선 데이비슨(Jonathan Davidson) 실행위원장의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었다. 글을 써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신호다. 쓰고자 하는 사람은 더 좋은 텍스트를 읽고자 하는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읽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잘 쓰인 글이 잠재적 독자를 만날 가능성은 점점 커진다. 좋은 책은 좋은 독자를 만들고, 좋은 독자는 좋은 책을 만든다. 그란타(Granta)와 페이버 앤 페이버(Faber & Faber) 출판사의 책임자들에게서도 그와 같은 선순환에 대한 확신이 느껴졌다. 그란타의 에디터이자 소설가이기도 한 맥스 포터(Max Porter) 씨는 단기적 손익계산에 민감한 거대 미디어 기업들은 선뜻 시도할 수 없는, 무거운 주제의 책들도 그란타는 내용에 대한 확신 하나로 거리낌 없이 펴낼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획과 출판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작가와 출판사, 독자가 가치를 공유하는 하나의 튼튼한 독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올해 28세의 나이에 최연소로 맨 부커상을 수상한 엘리너 캐튼(Elenore Catton)의 «루미나리에(Luminarie)»처럼 대범한 작품의 출간은 그란타의 선택을 존중하는 문학 독자들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역으로 말하면 그란타가 긴 시간 고유한 출판철학을 지켜왔기 때문에 충실한 독자층의 지지를 잃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85년 전통의 출판사 페이버 앤 페이버의 경우 문학서적의 시장 점유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었다. 터치 프레스(Touch Press)와 함께 개

발하여 출시한 어플리케이션 '황무지(The Waste Land)'는 새로운 독서체험을 위해 그들이 내놓은 대형 시도 가운데 하나다. 기획부터 출시까지 제작 기간이 2년여 걸렸고, 제작비도 3-4억 정도의 고액을 투자해야 했지만 출시되고 나서 손익분기점을 넘기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은 특별한 독서경험을 원하는 독자층이 분명 존재한다는 증거로 읽혔다. 하지만 그들에게 더욱 더 희망적인 것은 2008년 출범한 페이버 아카데미(Faber academy) 창작과정의 급속한 성장이다. 현재 1년에 500명 정도의 수강생이 40여 개의 코스를 밟고 있는 페이버 아카데미는 전체 매출의 25%에 가까운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한다. 그곳을 거쳐 가는 수강생들이 결국 페이버 앤 페이버가 펴내는 책들의 독자로 남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페이버 앤 페이버를 지켜갈 작가도 탄생할 것이다.

이언 매큐언(Ian McEwan)과 가즈오 이시구로(Ishiguro Kazuo)를 배출한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UEA)의 문학, 연극, 문예창작 학부에도 해가 갈수록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은 인구 15만의 작은 도시 노르위치(Norwich)에 있는데, 1991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는 문학 페스티벌은 살만 루시디(Salman Rushdie), 마가렛 애트우드(Margaret Atwood) 등의 저명한 작가들이 기꺼이 찾아오는 국제적 행사이다. 그곳에서도 책임기를 자발적으로 즐길 줄 아는 독자들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적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있었다.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 문예창작과 교수진과 학생들을 지역 학교에 파견하여 작문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New Writing Net online)에서 많은 사람들과 창작 공간을 공유하고, 온라인에 발표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학생들 스스로 작품을 선별하고 편집해 책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미래의 작가들과 독자들의 거리를 좁히는 작은 낭독회를 정기적으로 연다. 그리고 올해는 11-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위한 문학 페스티벌(Festival of Literature for Young People)'을 처음 열고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와 글쓰기의 기쁨'을 주제로 도서, 퍼포먼스, 영화상영 등을 4일간 진행했다고 한다. 이런 페스티벌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학교 도서관의 사서와 교사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을 것 같다.

이번 스터디 기간 동안 가장 여러 번 인상적으로 귀에 박혔던 말이 바

로 이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read for pleasure)'였다. 독서는 이제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훈육 받는 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독서의 순전한 기쁨을 아는 즐거운 독자가 즐거운 시민이 되고, 즐거운 시민이 즐거운 사회를 만든다. 독자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국 북 트러스트가 2012년 0-11세 아동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준 책이 5백만 권이라고 한다. 어릴 때부터 책을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영국 사회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BBC, 영국문화원, 공공도서관 등이 자라나는 세대들의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협업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다시 확인하게 될 때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문화 행사와 문학 페스티벌을 후원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옆두에 두고 있는 것이 기업 자체의 브랜딩 전략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것도 되새겨볼 만한 일이었다. 책을 읽는 행위는 인간의 잠재력을 키우고 자존감을 발달시킨다. 건전한 상식을 공유하는 독서 공동체의 양성과 유지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그만큼 훌륭한 구성원들이 자리 잡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이다. 영국의 기업들은 그들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 똑바로 보고 있는 것이다.

26년 전통의 헤이 페스티벌(Hay Festival)에도 자라나는 젊은 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풍부하게 기획되어 있었다. 작은 마을 축제로 시작된 헤이 페스티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은 '책을 나만의 것으로 만나는 일', 이 대체 불가능한 체험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 책의 밤(World Book Night)의 독서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고 있다는 것, 책을 사랑하는 사람 몇몇이 모여 작은 서점에서 퍼내던 서평지, <런던 리뷰 오브 북스(London Review of Books)>가 이제 영국의 문화적 취향을 대표하는 매체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은 '책과 문학'이 여전히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무엇보다 강력한 매개임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지속 가능한 독서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단순하고 명쾌한 답은 어찌면 처음부터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그것은 책을 읽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는 좋은 책들을 만들어가는 것,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읽고 싶은 마음을 북돋아 주는 것이다.

물론 좋은 책을 만들고 읽히게 하는 실질적인 전략들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나 끈질긴 고민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스테디 여행을 통해 나는 책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단일하지 않은 독자층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방식을 무엇보다 먼저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단조로운 하나의 접근방식으로는 독자층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없다. 독서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책을 제작하고 그것의 존재를 알리는 방식은 그에 맞춰 진화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도 반성해보았다. 독자층의 주의(attention)를 돈 주고 사서 책에 수명을 부여하는 방식은 이제 분명히 한계에 도달했다.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감의 교집합이 큰 다양한 독서 공동체를 양성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 감사하다. 에든버러와 런던에서 만났던 문화 기획자들이 책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길고 긴 시간에 걸쳐 하는 모습에서 받았던 감동을 오래 담아두고 싶다. 그들은 소수의 독자를 만나는 작은 행사 하나도 지극한 마음으로 기획하는 것에 모든 시작이 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읽기와 쓰기'의 가치를 공유해가야 할 사람들을 위해 이제부터 우리가 발을 디딜 수 있을 수많은 길이 거기에 있었다.

# 아동문학의 경계를 넘어서

김서정  
동화 작가  
중앙대학교 강의교수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한국위원회 회장

영국의 아동문학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은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크다. 우리는 세계 아동문학사가 영국의 «로빈슨 크루소»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배운다. 그리고 수많은 영국 동화들의 세례를 받는다. 위니 더 푸우나 피터 래빗 같은 캐릭터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친숙하다. 나니아 연대기에서 해리포터 시리즈에 이르는 하이 판타지의 문법은 판타지를 쓰고 싶어 하는 한국의 동화작가들에게 거의 하나의 규범으로 작용한다. 그뿐인가,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림책 작가는 존 버닝햄과 앤서니 브라운, 모두 영국 작가들이다. 그들의 방향이나 원화 전시회는 한국에서 떠들썩한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의 거의 모든 책은 한국에서 출간되어 성공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영국의 아동문학은 내게 개인적으로도 아주 의미가 깊다. 나를 동화작가로 만든 것이 루이스 캐럴(Lewis Carroll)과 엘리노어 퍼전(Eleanor Farjeon)이기 때문이다. 필리파 피어스(Eleanor Farjeon), 앤 파인(Anne Fine), 마이클 모퍼고(Michael Morpurgo), 데이비드 알몬드(David Almond)도 내가 따르고 싶은 작가들이다. 영국의 아동문학에는 특별한 깊이와 힘이 있는 것 같다. 이번 영국 여행에서 나의 목표는 그 깊이와 힘의 원천을 감지하는 것이었다. 짧은 일정 동안 너무 많은 곳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이 아동문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를 애초부터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수확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영국의 문단이 (한국과 다르게) 어른 문학과 아동문학을 굳이 따로 떼어놓지 않는 데에 감동했다. 그 사실은 노르위치의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UEA)에 갔을 때 확인한 것이었다. 문학, 연극, 문예창작학부(School of Literature, Drama and Creative Writing)에서는 학생들 교육 못지않게 지역사회 아이들과의 연대에도 힘쓰고 있었다. 문예창작과 학생들과 동문 작가들이 지역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책을 읽고 글을 쓰는 프로그램이 그중 하나였다. 성적이 부진하거나 환경이 어려워 대학에 못 가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이 프로그램은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참여한 학생 99%가 즐거움을 위해 글쓰기를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77%가 전국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향상되었고요.”

필립 랑게스코브(Philip Langeskov) 박사의 설명이다. 이 프로그램

은 2013년에 ‘젊은이를 위한 문학 페스티벌(Festival of Literature for Young People)’로 확대되었다. 11에서 17세 사이의 학생들을 모아 나흘 동안 UEA에서 워크숍, 낭송, 독서, 퍼포먼스, 영화 등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지역 50개 학교에서 사서와 교사를 포함한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였고 70% 이상의 학생들이 독서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나는 어떤 작가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궁금했다. 한국 같으면 동화작가, 혹은 청소년소설작가로 분류되는 작가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랭게스코브 박사는 그런 문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듯 놀라는 얼굴이었다.

“그런 분류 없이 모든 작가가 참여합니다. 동화작가도 있고 소설가도 있습니다.”

어른 문학과 아동문학의 경계 없음은 도서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독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독서연맹(The Reading Agency)은 어린이를 위한 활동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들의 주 활동무대는 도서관인데 아동도서 사서가 따로 있지 않다. 모든 사서들이 모든 책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른 책과 어린이 책을 나누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게 여긴다. 서고의 위쪽 칸에는 어른 책이, 아래쪽에는 어린이 책이 꽂혀 있어서 어른과 어린이가 한 주제에 대한 책을 함께 꺼내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도서관 기능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다릅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생기고, 지역마다 소규모의 어린이도서관이 드물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는 참고해야 할 미래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른들은 책을 읽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만 책 읽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닐까. 어린이도서관이 많이 생기는 것을 마냥 환영만 할 수는 없다는 어느 어린이도서관 관장의 말이 떠오른다.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책 읽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북 트러스트는 그런 목표를 향한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는 단체이다.

에든버러에서 방문한 스코틀랜드 북 트러스트는 ‘모든 연령의 읽기와 쓰기 능력 개발을 장려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 개발, 다양한 문학 이벤트 열기’ 같은 활동을 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스코틀랜드 아동 도서 상(Scottish Children’s Book Awards)이 그 중 하나다. 0-6세, 6-12세, 12-18세의 세 카테고리에서 45,000명의 투표를 받아 수상 도서를 결정한다. 일종의 인기투표지만, 독서환경에 축제 같은 흥을 불어넣는 데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어린 작가 상(Young Writer Award)은 말 그대로 어린 작가들의 백일장이다. 여기서 뽑힌 세 명의 어린 작가에게는 9개월 동안 어른 작가가 멘토가 되어 글쓰기를 지도한다. 스코틀랜드의 다정한 어린이 책 여행(Scottish Friendly Children’s Book Tour)은 작가들이 스코틀랜드 안의 학교들을 순방하는 고정 프로그램이다. 해마다 ‘보물’, ‘여행’ 같은 테마를 하나씩 주어 어른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짧게 써서 보내게 하고 꽤 여러 편을 선정하는 행사도 흥미롭다. 선정된 이야기들은 작고 가벼운 책으로 묶여 나오는데, 어른들을 책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인 듯하다. 작은 도시에서 아이들과 관련된 주제로 쓴 글을 이렇게 다수 선정해서 책으로 낸다면 그 지역 커뮤니티의 화합과 독서 활성화를 자극하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버밍엄 문학 축제(Birmingham Literature Festival)도 어른을 위한 행사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8세에서 16세의 어린이를 위한 창작 워크숍이 250가지나 된다! 학교에서는 교사와 전문 작가가 함께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창작 능력을 키워준다. 축제 위원회에서는 그런 멘토 작가를 20명 확보하고 학교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지원한다. ‘작가를 학교 교실로!’가 이 축제의 모토 중 하나이다.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잡지도 축제 위원회의 후원으로 3달에 한 번씩 발간되고 있다.

버밍엄 문학 축제의 실행위원장(Chief Executive)인 조너선 데이비슨(Jonathan Davidson)은 온화한 얼굴로 친절하게 그 축제에 대해서 설명해주었다. 그의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창작산업(Writing Industry)이라는 용어였다. 그 말의 정의는 무엇인가? 언제부터 그런 용어가 쓰였나? 나의 질문에 그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는 표정이었다.

“그 용어는 약 15년 전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작가란 개인적으로 일하

는 사람이다. 그래서 큰 시장에서는 약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조직(에 이전시라든지 출판사라든지 페스티벌 등을 말하는 것 같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신의 작업이 상업이나 교육 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분야가 창작산업이다. 때로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충분한 설명을 듣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새로운 자극을 주는 말이 었다. 이제 글 쓰는 일은 더 이상 골방 안에서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라 산업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작가를 양성하고, 독자를 개발하고, 책과 관련된 분야의 다양한 종사자들이 파트너십을 만들고, 새로운 창작 방식을 개발하고, 책과 다른 분야의 예술 이를테면 음악과 미술과 연극과 무용들이 협력하고 하는 일이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는 공장의 모습으로 떠오른다. 새로운 ‘모던 타임즈’를 보는 듯하다. 이 창작산업이라는 개념이 미래의 문화 현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 데이비슨의 말처럼 그것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영국의 아동문학에 대해서 가졌던 의문을 푸는데 하나의 단서가 되기도 했다. 영국의 아동문학이 특별한 깊이와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어떤 큰 구조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루이스 캐럴 같은 옥스퍼드대학교의 수학교수가 동화를 썼고, 조지 맥도널드나 C. S. 루이스 같은 세계적인 기독교 사상가도 동화를 썼고, 이언 맥큐언 같은 유명한 소설가도 동화를 썼다. 그것은 아이들 문학에만 힘을 준 것이 아니라 어른들 문학이나 종교적 글에도 힘을 보탤 것이다. 그러니 우리 아동문학은 좀 더 아동문학 밖으로 나가 다른 문학, 다른 예술과 어울려야 하지 않을까. 다른 문학, 다른 예술은 아동문학 안으로 섞여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이번 여행에서 얻은 나의 화두이다.

# 풍부한 문학 자산의 토양, 그와 함께 하는 한국문학을 꿈꾸며

이정화  
대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과장

로렌스 스톤의 «트리스트럼 샌디»는 대산문화재단이 지원하는 <대산세계 문학총서> 제1권으로 발간된 영국 소설이다. 한 세계문학총서의 첫 작품으로 18세기 영국의 전위소설이자 근대 소설의 효시로 불리는 이 작품이 선정된 것은 총서의 지향점과 의미를 밝히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에는 영국의 여성 소설가 엘리자베스 개스켈의 «남과 북»이 출판되었는데, 지금까지 총 1백20권이 발간된 이 총서에 포함된 영국 작가의 작품이 무려 14권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가진 문학적 자산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영국 문학이 가지고 있는 위상은 영국 토착적인 전통과 대륙적인 전통이 융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진 문화 전통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가진 영국의 주체적 태도는 자국의 전통을 더욱 풍부하게 하여 지금의 수준 높은 문학 세계를 이룰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문학 작품의 생산 기지로서 21세기 영문학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적 출판사 팬맥밀란(Pan Macmillan), 그란타 북스(Granta Books) 그리고 페이버 앤 페이버(Faber & Faber) 사를 방문한 것은 작가와 출판인, 독자가 만들어낸 멋진 앙상블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상적인 경험이었다.

## 팬 맥밀란

팬 맥밀란은 영국에서 가장 큰 종합 출판사로서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맥밀란 그룹 중 하나이다. 맨틀(Mantle)은 그 중에서도 기성 작가에서 신인 작가들에 이르는 그들의 소설, 논픽션, 범죄·스릴러물까지를 다루는 문학 출판 계열사로 2010년 설립되었다. 맨틀을 런칭한 이래 이곳의 대표이자 편집장을 맡고 있는 마리아 레히트(Maria Rejt)는 맥밀란에서 수많은 베스트셀러 작가들을 발굴하고 출판한 10년여 경력의 베테랑이다. 그녀는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더욱 특화하고 관심의 폭을 넓혀 맨틀을 통해 더욱 더 진지하고 장르 지향적인 작품들을 발굴하는 데 애쓰고 있다. 또한 바깥으로 눈을 돌려 번역 작품에까지 리스트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온 우리 방문단을 맞이한 마리아 편집장과 팬맥밀란의 저작권 담당자, 국제 세일즈매니저들은 그들이 가진 출판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방대한 출판 리스트에 담아 드러냈는데, 2010년 아마존과의 전자책

시장 싸움에서 수많은 베스트셀러와 그 이상의 다양한 도서를 등록시키고 있는 거대 출판사로서 그 영향력을 제대로 드러냈던 팬맥밀란의 위용을 대변하는 듯 했다.

### 그란타 북스

조용하고 아름다운 거리에 위치한 고풍스런 건물의 그란타 북스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격을 자랑하는 영국 내 가장 수준 높은 문학 출판사임을 자부하는 곳이다. 세계 문학 편집자들의 로망으로도 불리는 그란타는 매년 문학작품과 논픽션을 포함한 25권 정도의 신간을 발간하고 있다. 이에 더해 그란타는 작가들에 대한 동기 부여 즉, 그들의 창작 활동을 위한 리뷰, 문학상 수여, 문학적 체험 등을 제공하며 작지만 매우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자극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작가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이어가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신인 작가를 발굴하는 데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매거진 계간 <그란타>는 1979년 재창간 이후로 브라질, 노르웨이, 중국을 포함한 세계 10개국에서 발간되는 세계적 문학잡지이다.

<그란타>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문학잡지가 된 것은 이야기의 힘, 정치와 문학적 계파를 초월하여 이야기를 통해 현실을 증명하는 힘을 믿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란타 북스와 <그란타>의 발행인 시그리드 라우싱(Sigrid Rausing)을 비롯하여, 외부의 강박, 어떤 문학적 선언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란타 사람들의 믿음과 지향은 현재의 '전 세계인이 믿고 볼 수 있는' 문학 전문 출판사 그란타를 만든 밑바탕이라 하겠다.

### 페이버 앤 페이버

올해 8월 30일, 199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아일랜드 시인 세이머스 히니가 74세로 타계했다. 이 위대한 작가의 사망 소식을 공식 성명으로 발표한 곳은 출판사 페이버 앤 페이버였다. 페이버 앤 페이버는 런던에 있는 가장 큰 독립 출판사로서 12명이 넘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및 6명의 부커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출판사이다.

이 출판사는 페이버 파인즈(Faber Finds), 페이버 디지털(Faber Digital), 페이버 아카데미(Faber Academy) 그리고 페이버 팩토리(Faber Factory) 등

의 계열사를 통해 신간 목록을 풍부하게 하고 전자책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주문형 출판 등의 새로운 시도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아이패드 앱으로 출시한 “The Waste Land” (T. S. 엘리엇 作)는 출판사의 미래지향적이고 선도적인 비전을 보여준다. 이 출판사는 또한 페이버 아카데미를 통해 80년간의 출판 경험을 토대로 한 창작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5백 명 이상의 학생들이 작가와의 만남 등을 통해 자신의 글쓰기에 도움을 받고 있다.

매우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시장 분석을 통해 체계화된 계열 분리와 그에 따른 역할 분담이 돋보였던 페이버 앤 페이버는 우리 방문단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에 함께 자리한 멜리사 엘더스(Melissa Elders)가 방금 방콕에서 도착했다는 말로 국제적 마케팅의 한 부분을 대신 설명하기도 했다.

출판은 단순하게 보면 제조업이다. 하지만 우리 시대 출판사의 역할은 그에 그치지 않고 작가를 발굴하고 쓰게 하며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기 언급한 대표 출판사들은 매우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며 때로는 종합적이고 때로는 상업적인 시각으로 영국의 문학을 세계의 문학으로 풍성하게 전개해가는 데 큰 힘을 보태고 있었다. 세계 각 국으로 전파되는 영국의 문학들, 세계인의 서가에 꽂히고 있는 영국의 작품들은 이들의 힘을 빌려 세계화의 큰 그림을 완성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눈이 영어로 쓰인 문학작품 외에 소수 언어권의 번역 문학에도 관대하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문학을 세계에 자리 잡게 한 데에는 만국공용어로 지칭되는 ‘영어’의 힘도 강하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글’이라는 독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문학은 세계화라는 명제에 있어 해결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한 나라의 작가가 국제적인 지명도를 얻으려면 좋은 작품, 좋은 번역, 그리고 좋은 출판사가 필수적이다. 좋은 작품은 세계인에게 호소력을 지닌 훌륭한 문학작품을 의미하고, 좋은 번역이란 원작을 절묘하게 살려내는 유려한 번역을 뜻하며, 좋은 출판사란 해외의 주요 상업출판사를 말한다. 흔히 작가들은 뛰어난 번역가의 부재를 우려하고, 번역가들은 해외에 내놓을 만한 작품의 부재를 비판하며, 해외 출판사의 편집자들은 한국문학의 상업성 부족, 문학 작품으로서의 적절치

않은 번역 수준을 동시에 문제 삼는다.

따라서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시한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염원하는 우리에게 세계적 작품의 창작, 훌륭한 번역가 양성, 해외 대형 출판사 섭외 등이 숙제로 남아있다. 이런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2014년 런던도서전 주빈국 선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 런던도서전

프랑크푸르트도서전과 함께 유럽 양대 도서전으로 꼽히는 런던도서전(London Book Fair)은 베이징국제도서전, 북 엑스포 아메리카, 도쿄국제도서전 등과 함께 세계 주요 도서전 가운데 하나로 평가 받는다. 1971년 첫 행사가 개최된 이후로 매년 4월경 약 사흘 동안 진행되는데 세계 각국의 출판사와 서점, 저작권 대행사, 도서 관련자 등이 참여한다. 도서전은 단순한 도서 판매의 장을 넘어 세계 출판 시장에 구체적인 이슈를 제기하는 기능도 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마켓 포커스—스페인’을 시작으로 특정 국가를 주빈국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런던도서전 주빈국으로는 한국이 선정되었다. 도서전 조직위원장은 한국을 런던도서전 주빈국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한국이 시장규모 면에서 세계 10대 출판 강국에 드는 나라인데다 수준 높은 문학작품이 많이 나오는 나라라는 데 조직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주빈국으로 한 2014 런던도서전을 앞둔 영국 문학, 출판계의 관심은 생각보다 뜨거웠다. 영국 내 최대 종합출판사인 팬 맥밀란의 맨틀에서는 이정명 작가의 작품 《별을 스치는 바람》 영역판을 출간한다고 밝혔고, 이 작품의 번역가이자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번역한 김지영 씨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드러냈다. 영국 최고의 문학출판사로 이름 있는 그란타 북스에서는 한강의 《채식주의자》 영역판 출판을 준비 중인데 한강 작가와 같이 보편적이고 개성 있는 글쓰기를 하는 한국의 젊은 작가들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영국문화원에서 준비한 런던 네트워킹리셉션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만남이 진행되었는데,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영국 소녀 테보라 스미스(한국어 이름 김보라)의 한국 소설 번역에 대한 애정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는 한국어를 배운 영어 원어민이 번역을 맡는 바람직한 케이스이기도 해 높은 번역 수준에 대한 기대 또한 상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문학 작품의 영어권 진출에 봄바람 같은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던 런던 방문 이후 런던도서전을 기념한 행사로 반가운 손님들이 한국을 찾았다. 팬 맥밀란 맨틀의 마리아 레히트 편집장 등 영국 주요 출판사 대표를 포함한 편집장 6명, 그리고 영국문화원 본부 문학디렉터 등이 런던도서전을 홍보하고 한국의 문학, 출판계 동향과 한국의 작가들을 살피기 위해서 방한한 것이다. 이들은 일찍이 영어권에 소개될 바 있는 신경숙, 김영하, 조정란 등의 작가들과 신선하고 개성 있는 글쓰기로 높이 평가받는 배수아, 정영문, 한강, 한유주 등의 젊은 작가들,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앞서 해외에 소개된 동화작가 황선미 작가 등 한국의 여러 작가들에게 관심을 보였다.

물론 전제조건은 “영어권 독자들이 감동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이었다. “이정명 작가의 ‘The Investigation’ (원제 《별을 스치는 바람》)이 한국 문학을 영국에 알리는 데 돌파구가 되길 바랍니다. 한 작품만 터지면 다른 작품들도 줄줄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한 마리아 레히트 편집장의 말이 우리의 또 다른 시작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는 이유이다. 이번 한영 문학출판 기획자 교류 프로그램과 런던도서전 등을 통해 무르익은 서로에 대한 관심은 그가 말하는 ‘성공’에 다다르기 위한 선결 과제 해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가능성의 지속을 위해서 양국 간 교류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 영국의 유네스코 문학도시: 에든버러와 노르위치

여지인  
토지문화재단 학예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는 2004년 10월 유네스코 제170차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 문화산업의 창조적, 사회적, 경제적 가능성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궁극적으로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네트워크는 7개의 주제로 이뤄져 있는데, 각 도시의 선호도와 능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고, 도시들은 문학, 영화, 음악, 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예술, 요리 등 일곱 개의 영역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자료

현재 유네스코 창의도시 38개 중 문학도시는 에든버러(영국 2004), 멜버른(호주 2008), 아이오와 시티(미국 2008), 더블린(아일랜드 2010), 레이카비크(아이슬란드 2011), 노르위치(영국 2012), 크라쿠프(폴란드 2013) 7개 도시로 이 가운데 두 곳이 영국이라는 것은 영국문학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을 반영한다. 에든버러는 세계최초의 문학도시이며 노르위치 문학도시 지정으로 영국의 전 세계적 문학 네트워크의 선도적인 역할은 더욱 커졌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교류 프로그램은 문학행사를 통해 기쁨과 희망, 꿈을 창조해 나가려는 한국의 문화기관 담당자들이 새로운 꿈을 꾸는 시간이었다.

## 유네스코 문학도시 에든버러

“It is impossible to live in Edinburgh without sensing its literary heritage.”  
— 조앤 K. 롤링 《해리포터》 저자

“The story is told eye to eye, mind to mind, and heart to heart.”  
— 스코틀랜드 여행자의 격언

유네스코 문학도시 에든버러 트러스트는 2004년 문학도시 지정 후 활동을 시작했고, 문학도시들간의 연결점들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데 두 명의 상근 직원과 14명의 재단 임원이 있다. 엘리 보우든 대표는 에든버러가 문학도시가 된 배경과 과정을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덧붙여 재미있게 설명해주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요소에서 문학적 우수성이 평가기준이었다고

말했다.

에든버러는 수 백 년 동안 유명한 작가를 배출한 도시로, 그중에는 «설  
록 홈즈»의 저자 아서 코난 도일(1859년 에든버러 출생), «피터팬»의 제임스  
매튜 배리, «보물섬»의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해리포터»의 조앤 K. 롤링  
등과 같은 세계적인 작가들도 있다. 또한, 문학 작가를 위한 기념비로 세계  
에서 가장 높은 월터 스콧(Walter Scott, «아이반호» 저자)을 기념하는 스콧  
기념비(Scott Monument, 빅토리아 고딕 양식의 첨탑, 높이 61.1m, 스콧 사후  
12년 지난 1844년 완성)가 도시 한가운데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에  
든버러의 명소가 되었다. 1508년 스코틀랜드 최초의 책 인쇄, 1768년 브리  
태니커 백과 사전 초판발행, 1728년 대출 도서관 설립, 세계 12번째 규모의  
스코틀랜드 국립 도서관과 140개의 도서관과 정보 센터, 시내 중심에 있는  
45개 이상의 서점, 1580년 설립된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에든버러 대학 도  
서관, 잡지로 <블랙 우드>, <에든버러 리뷰> 등과 캐논게이트 북스(Canongate  
Books)를 비롯해 도시에 기반을 둔 50개의 출판사가 과거의 요소이며, 올해  
로 30회를 맞은 8월 북 페스티벌 등 현재 진행되는 문학행사가 현재와 미래  
의 요소라 할 수 있다.

북 페스티벌 시기엔 도시 전역에 마술과 같이 많은 부스가 생기고 사  
람이 모이고, 가장 좋은 장소를 몰색하여 그곳에서 신인작가를 소개하는  
등 모든 창의적인 기획들이 가능하며 모든 거리가 전시 장소가 된다. 유명  
작가가 무명작가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신인작가들을 위한 지원도 최근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모든 작가에게 열려  
있는 페스티벌이다. 특이한 점은 누군가가 시킨 것이 아닌 자발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문학에 관심을 가져다 주는 방법을 모색, 돌담  
에 명언 구문 등을 새기거나, 성에 시를 띄우던지, 시집을 나눠주는 방법, 작  
은 카드에 '시 한 구절'을 쓴 카드를 도시 전역에 나눠 준 것 등은 성공적인  
행사였다. 또한, 도서관, 카페, 레스토랑 등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에든버러는 유네스코 문학도시 준비를 위한 연구 과정에서 똑같은 일  
을 하는 기관을 파악하여 중복 부분, 부족한 부분, 투자를 요하는 부분들  
을 알고 조정을 하는 힘든 시간을 거치며 특히 서로의 이익을 조정하기 힘  
들었지만 지금은 기관들의 단합과 협력이 잘되고 있다. 현재 100개 이상의

기관이 협력하고 있는데 그중, 이번에 방문한 스코틀랜드 북 트러스트와 스  
코틀랜드 스토리텔링 센터(Scottish Storytelling Centre)를 살펴보도록 하자.

#### 스코틀랜드 북 트러스트

스코틀랜드 북 트러스트는 스코틀랜드의 문학, 독서, 글쓰기 증진프로  
그램 운영 기관으로 출생 후 16주, 18개월, 3세, 초등입학의 각 시기에 책이  
담긴 가방을 지원하는 북 버그(Book bug), 아동이 수상할 책을 선정하는 프  
로그램으로 스코틀랜드 아동 도서 상(Scottish Children's Book Awards), 전국  
북 리뷰 대회, 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청소년작가상은 3명의 청소년을 선정하여 유명한 작가와 함께 작  
업하고 출판사, 편집자들과도 만나게 한다. 신인작가상(New Writers Awards)  
은 2,000파운드 상금을 주고, 중견작가로부터 교육을 받게 해주거나 작가  
개인의 여건에 맞춰 진행하여 작가의 결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도와  
주는 등 작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상으로 TV, 영화, 연극 등에 창작물을  
발표하게 도와주고 출판사와도 연결해 준다.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스코틀랜드 전역에 자신의 이야기를 공모하여 그 이야기를 15만부 출판, 무  
료 배포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독서의 예술: 스코틀랜드 책을 위한 벽화의  
주간(The Art of Reading: Murals for Book Week Scotland)'은 5명의 유명작가  
를 골라, 독서에 대한 작가의 의견을 시각 예술가들이 5개의 도서관 한 벽  
면을 그림으로 제작하고 정해진 날짜에 순차적으로 그림을 공개함으로써  
독서의 중요성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인데, 올해 새로 기획되었다.

#### 스코틀랜드 스토리텔링 센터

스토리텔링은 구전문학 수집에서 시작되었다. 스코틀랜드의 풍부한 이  
야기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스  
토리텔링 외에도 연극, 음악, 전시, 수공예품 전시회, 워크숍, 전통 예술 등  
의 행사가 진행된다. 가장 큰 행사로 봄에 전통예술축제(Traditional Arts  
Festival)와 10월에 국제 스코틀랜드 스토리텔링 축제(Scottish International  
Storytelling Festival)가 열린다. 1층에 책과 선물 가게, 전시공간, 스토리텔링  
카페가 있다.

## 유네스코 문학도시 노르위치

노르위치는 900년 역사를 가진 문학도시로, 1395년 줄리안(Julian)이 여성 최초의 책을 출판했고 영국 최초 지방공공도서관(1608) 설립과 신문 발행(1701), 공공 도서관 법(1850) 구현, 영국의 첫 번째 문학석사자 배출(이언 매큐언 1971) 등 많은 부분에서 첫 번째를 기록한 도시이다. 도시 중심에 웅장한 노퍽 앤 노르위치 밀레니엄 도서관(Norfolk and Norwich Millennium Library)과 2만권 이상의 장서와 15세기부터의 자료를 소장한 대성당 도서관(Cathedral library), 자연과 역사 희귀도서를 많이 소장한 존 인스 센터(John Innes Centre) 등 도서관의 도시이기도 하다.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UEA)의 문예 창작과정은 국내 및 국제 문학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세 명의 부커상 수상자(가즈오 이시구로, 이언 매큐언, 앤 엔라이트(Anne Enright))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수상자들도 UEA출신이 많다. 노르위치 출신의 작가들 가운데 «상식(Common Sense)»의 저자 토머스 페인(Thomas Paine)은 미국 혁명에 영향을 주었으며 엘리자베스 프라이(Elizabeth Fry)는 고발기사로 감옥제도를 바꾸게 만들었다. 영국 최초로 위협에 직면한 작가를 위한 피난처로 노르위치 작가 센터(Writers' Centre Norwich)를 만들고 피난처 네트워크 국제도시(ICORN, International Cities of Refuge Network)의 창립 멤버로 샤흐라자드(Shahrazad)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유네스코 문학도시의 목적인 국제교류와 창의적 글쓰기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제 작가 센터(ICW, International Centre for Writing)는 2016년 4월에 개관될 예정이다.

### 노르위치 작가 센터

노르위치 작가 센터는 창작이 예술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둔 문학 개발 기관으로 처벌의 위협에 처한 작가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열기도 한다. 최근 쿠바, 중국, 터키 작가를 초청하였으며 워크숍, 경시대회,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작가들의 세계진출을 돕는다. 영국 독자들이 세계문학을 접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번역센터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와 이벤트로 광범위하게 작가, 독자, 지역사회와 함께 만나며 국제적인 여러 조직과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있다.

###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 문학, 연극, 문예창작 학부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는 1970년 영국 최초로 창작과를 설립하였다. 문학, 연극, 문예창작 학부는 문학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오랜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가 말한 '문학은 뉴스로 남았을 때 뉴스이다(literature is news that stays news)'라는 신념에 의해 문학과 작문을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한다. 봄, 가을 문학 페스티벌은 1991년부터 시작, 아서 밀러, 살만 루시디, 마가렛 애트우드 등 국제작가들도 초청하여 15만 명의 관객이 축제에 참여하며 행사 수익으로 학생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UEA 출신 작가들이 참여하는 UEA Live 프로그램은 노르위치 작가 센터와 함께 진행하며, 이를 통해 작가와 독자와의 친밀한 만남을 도모한다. 청소년을 위한 문학페스티벌(FLY)은 올해 처음 시작되었다. 11-17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의 즐거움과 글쓰기의 즐거움을 목표로 4일 동안 진행, 워크숍, 낭송, 퍼포먼스, 영화 등을 진행했는데, 참가자 중 70% 이상이 독서와 글쓰기를 계속하겠다고 하며 96%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얻었다고 했다. 또한, 학생의 77%가 성적향상의 결과를 얻었다. UEA의 문학, 연극, 문예창작 학부는 가까운 미래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 영국문학번역센터

영국문학번역센터(British Centre for Literary Translation)는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의 문학, 연극, 문예창작 학부 소속이며,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 국립 포트폴리오 기구(National Portfolio Organisation) 중 하나이다. 문학번역 석사과정, 문학이론, 번역훈련에 도움을 준다. 다른 나라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도와 영국 독자들을 위한 문학 다양성 지향에 주안을 두고 있다. 번역물 출판사와의 토론 및 대화를 통해 번역물 출판의 장벽에 대해 논의하고 런던 도서전 번역센터와 국제번역의 날(9월 13일) 행사를 통해 번역가와 출판사가 연계되도록 돕는다. 문학번역전문가 개발로 신진번역작가 네트워크와 온라인 네트워크 등을 통해 번역가끼리 교류를 돕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신진작가와 중견작가를 연결해주며, 아동문학저자와 번역

자가 만나는 워크숍(The Children's Books Show와 London Review Bookshop)과 매월 작가와 번역가가 세계 각국의 현대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다른 나라에서 6명의 번역가가 와서 일주일간 레지던스 작업을 하는 여름학교는 다른 규모의 페스티벌과 함께 연계하여 작업하는데 축제기간에는 청중들이 실험적인 작품에 기꺼이 참여하므로 이때 영국작가가 외국작가를 소개하면 효과가 있었다. 번역가는 작품의 소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은 아직 번역예술, 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번역가는 창작가이며, 새로운 작품이라는 번역문학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맺음말

이번 교류 프로그램에서 여러 기관과 출판사를 방문하였지만 특히 영국의 유네스코 문학도시 두 곳을 함께 둘러볼 수 있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도시간의 지향점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에든버러가 과거문화유산을 토대로 문학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문학의 쉬운 접근을 모색한다면, 노르위치는 작가를 키우고 번역문학의 발전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문학개발의 미래를 지향한다. 최근 한국은 지자체마다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문화행사나 문학관 건립 등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방향을 정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에든버러와 노르위치에서 배울 수 있었다. 영국내의 여러 문화기관들을 방문하면서 참으로 많은 기관이 적은 인원으로 문화를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적은 인원과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문화를 나누기 위한 노력은 내가 속한 토지문화재단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나를 잘 바라볼 수 있듯이 이번 교류를 통해 내가 일하는 재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이번 교류 프로그램 참여의 가장 큰 소득이다. 아마도 영국내의 여러 문화기관들도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좀 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

진다는 말처럼 문화도 나눌수록 각자가 가진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방문에서 노르위치 작가 센터의 앨리스 맥팔레인과는 만남은 나에게 아주 특별했다. 노르위치는 많은 면에서 토지문화재단이 위치한 원주와 아주 비슷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수도인 런던에서 두 시간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 쉽게 런던으로 가서 문화 경험을 하고 올 수 있다는 점, 지역문화 발전이 다소 한계가 있으며 인구가 많지 않고 지역은 넓다는 점과 오픈 예정인 국제 작가 센터 공간이 토지문화재단 사업과 공통분모가 많아 앞으로 교류를 통해 서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깊이 공감했다.

# 함께 즐거운 책 읽기

조은정

파주북소리 조직위원회 마케팅 팀장

철학자 에머슨은 “같은 책을 읽었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소중한 끈”이라고 했다. 즉 누군가와 같은 책을 읽고 대화를 하며 공감하는 순간, 책의 활자를 단순히 읽어가는 것을 넘어 그 책은 종이컵 전화기와 같이 우리의 감성을 이어주고 새로운 공감각적 경험을 가지게 한다. 북 페스티벌 담당자로서 이번 한·영 출판 문학 교류 프로그램에서 보고 느끼고, 배우고 자 하는 가장 큰 명제를 한 줄로 표현하는 말인 것 같다.

## 세계인과 함께하는 책 읽기

유네스코 문학도시 에든버러는 우리가 만난 첫 번째 기관으로 세계 문학도시로서 에든버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계 최초의 유네스코 문학도시인 에든버러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고풍스러운 멋을 지닌 도시로 월터 스콧,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아서 코난 도일, 조앤 K. 롤링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자들을 많이 배출하였으며 주요 출판사만 50개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에든버러 국제 책 축제, 스코틀랜드 국제 스토리텔링 축제, 맨 부커 국제상 등을 통해 문학도시의 활기를 더 하고 있다.

에든버러 유네스코 문학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젝트는 ‘시를 가지고 다녀요(Carry a poem)’였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 전체에 걸쳐 시를 읽는 캠페인으로 스코틀랜드 운문도서관과 시 도서관들이 함께 연대하여 진행하며, 매년 2월 한 달 동안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들이 펼쳐진다. 또한, 시가 적힌 포켓카드와 함께 수천 권의 책이 무료로 제공된다고 한다. 몇 년 전에 배포했던 포켓카드를 누군가가 다시 자신에게 주었다며 기관 담당자가 포켓카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이 포켓카드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으며, 또 누군가에게 다시 건넬 때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짐작해본다. 이게 시가 주는 공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헤이 페스티벌은 한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세계적인 문학 축제로 1987년 헤이 온 와이에서 처음 개최되어 2013년 26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세계의 저명 작가와 사상가, 영화 제작자, 역사학자와 소설가, 철학자, 시인, 과학자들이 모여 이야기와 생각을 나누는 지식의 장이 되고 있다. 수많은

은 사람들이 들뜬 상태에서 서로 어울리며, 세계를 새롭게 상상할 수 있는 영감을 찾는 자리를 가지는 것이 헤이 페스티벌의 의도라고 한다.

또한, 헤이 페스티벌은 헤이 온 와이 책마을 이외에도 카르타헤나에서 다카로 베이루트에서 나이로비까지 매년 전 세계 열 개의 도시에서 축제를 개최한다. 2012년 헤이 페스티벌 웨일즈(Hay Festival Wales)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강연, 토론, 워크숍 및 이벤트 등 수백 개의 프로그램과 함께 53개국이 참여하였고, 225,000장의 티켓과 72,000권의 책이 판매되었다고 한다. 또한, 아동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인 헤이 피버(Hay Fever), 학교 참여 프로그램과 잉크와 종이를 절약하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운영되는 그린프린트 프로젝트(Greenprint Project)인 헤이 온 얼스(Hay-on-Earth)를 함께 진행하였다.

헤이 페스티벌 잘라파(Hay Festival Xalapa)의 경우 28,000여 명의 방문객과 89명의 국제적인 작가와 아티스트들이 참여하였고, 케냐 나이로비에서 진행된 스토리모자 헤이 페스티벌(Storymoja Hay Festival)은 아이들에게 독서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1,20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였다고 한다.

이외에도 헤이 페스티벌 카르타헤나(Hay Festival Cartagena)의 경우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문화 행사로 평가 받고 있으며 축제 기간에 책 판매량이 약 20% 가까이 올라갔다고 한다. 이렇듯 헤이 페스티벌은 국제적 역량을 기반으로 책을 통해 세계인과 공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다.

### 누구나 함께하는 책 읽기

퀵 리드의 프로젝트 총괄 캐시 란젠브링크를 만난 건 그녀의 파주출판도시 방문 이후 두 번째였다. 이전 방문에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던 기관이라 만남의 시간이 짧음이 못내 아쉬웠다. 영국 성인 여섯 명 중 한 명꼴로 독서를 어렵게 느끼고 책 읽기를 꺼리며, 책을 읽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보통은 책 읽는 것을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해 지레 겁을 먹기 때문이라고 한다. 퀵 리드는 이런 생각을 바꾸고 모든 사람들이 독서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매년 유명작가들에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써달라고

의뢰하고 있으며 어려운 단어나 복잡한 개념을 포함하지 않도록 기획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출판된 책들은 도서관에서 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서점 및 온라인서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2006년 설립된 이후 4천5백만 권의 책을 배포하였고, 이 책들은 3만 건 이상 도서관에 배치되어 매년 수천 명의 독자와 만나고 있다. 기관 담당자인 캐시는 문맹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책을 만들고자 했던 자신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배경과 의미를 충분히 전달받을 수 있었다. 한국에도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시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세계 책의 밤(World Book Night)은 만남을 가장 기대했던 기관이었다. 세계 책의 밤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이끄는 축제를 만들어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세계 책의 날과는 다르게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책을 정기적으로 읽지 않는 이들을 참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계 책의 밤은 세익스피어가 태어나고 죽은 날이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국제 책의 날인 4월 23일에 진행되며, 매년 만 명의 자원봉사자에게 자기가 즐겼던 책 20권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물려주도록 요청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책을 선물 받는 이들 중 일부라도 책 읽기와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고, 이런 능력이 가져다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고 한다.

이 프로젝트는 행사 약 5개월 전부터 자원봉사자를 선정하기 시작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주최 측에서 선정한 도서를 전달하는 방식과 더불어 자신이 원하는 책을 기부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2011년을 시작으로 현재 약 4천6백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고, 2백만 부의 책이 전해졌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하여 독자와 저자가 만나는 수백 개의 지역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서는 만여 명이 모여 기념행사를 열었으며, 여기에는 BBC, 유명작가들, 출판사 대표들, 가수 등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이는 지역사회는 물론 출판사, 저자, 독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하여

가능하였으며 더 많은 사람이 즐겁게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방문기관 이외에도 여러 다른 기관의 사례들을 통해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함께 하는 즐거운 책 읽기의 단면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우리가 깊이 고찰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서두에서 책이 사람들 사이 소통의 매개가 됨을 서술했었다. 이번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은 이 말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해석과 실천이었던 것 같다.

# 셰익스피어의 나라 영국 방문기

안현미  
시인, 연희문학창작촌 실장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기획에 의해 2004년 최초의 문학 도시로 선정된 에든버러에서 시작한 이번 ‘한-영 문학·출판 기획자 교류 프로그램’은 8박 9일 동안 영국의 3개 도시 30여개 기관 40여명의 담당자들과 교류하는 강행군으로 진행되었다. 개인적으로는 문학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시인으로서 ‘인도를 다 주어도 결코 셰익스피어와는 바꾸지 않겠다’는 문학적 자긍심이 높은 나라 영국을 직접 찾아가 그 속에서 거닐 수 있는 행운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세계 3대 도서전으로 손꼽히는 ‘런던도서전’의 2014년 주빈국으로 한국이 선정되어 사전 교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터였다. 또한 한국에서도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거의 없는 각 기관의 문학 관련 담당자들이 8박 9일 동안 영국의 다양한 문학 지원의 노력들을 함께 목격하고 그동안 각자 쌓아온 경험 속에서 질문하고 토론했던 이번 기회는 참 특별한 시간으로 기억될 듯하다.

그 중 연희문학창작촌의 작가 지원과 문학적 소통 활동과 비교하여 영국의 두 문학도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활동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 노르위치 작가 센터

에든버러와 함께 유네스코 문학 도시로 선정된 노르위치는 900년의 역사를 가진 문학 도시로서 노르위치 작가 센터 외에도 1970년 최초로 창작과정을 개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작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의 문학, 연극, 문예창작 학부가 있다. 이 대학 문예창작 학부는 세계적인 작가 살만 루시디, 도리스 레싱이 찾아와 강연을 할 정도로 인정받는 대학이다. 또한 문예창작 학부 소속이면서 동시에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 ‘국립 포트폴리오 기구’ 중 하나인 영국문학번역센터 등 다양한 문학적 인프라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문학적 풍부함은 세계 곳곳의 시인, 소설가, 전기작가, 극작가, 번역가, 문화 비평가, 사학자, 환경 운동가, 철학자들이 노르위치를 찾아오게 만들고 있으며 매년 6월 열리는 월드 페스티벌을 통하여 외국 작가를 초청(초청티켓, 항공료, 체재비 제공) 외국 문학과 교류 활동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문학 도시로서의 역할을 선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르위치 작가 센터는 창의적 글쓰기, 예술 및 사회적 영향력에 관심을 둔 문학 개발 기관으로서 세계 곳곳

의 작가들이 노르위치 작가 센터를 찾아와 문학 창작 활동을 하는 데 많은 영감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문학적 풍부함은 한 기관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르위치 내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의 협업과 네트워크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또한 놀라운 점이었다. 이와 비교해볼 때 연희문학창작촌의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경우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한국문학번역원 등 타 기관과의 연계나 협업을 통하여 입체적인 지원(항공료, 체재비 지원 등)의 방향을 모색하는 쪽으로 운영된다면 세계 각국의 작가들이 꼭 한 번 찾고 싶은 문학적 장소성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보았다.

### 스코틀랜드 스토리텔링 센터

유네스코가 선정한 최초의 문학 도시 에든버러에 위치한 스코틀랜드 스토리텔링 센터는 연중 다양한 스토리텔링 이벤트들을 운영하는 복합 문화 예술 공간으로서 스토리텔링 관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연극, 음악, 전시, 수공예품 전시회, 워크숍, 문학과 정통 예술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었다. 우리가 찾아가던 날은 추적추적 비가 흩뿌리고 있었지만 스토리텔링 센터 1층 스토리텔링 카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커피와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한편에 마련되어 있는 북 스토어에서는 기념품과 책을 팔고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눈 갤러리에서는 미술 작품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또한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토리텔러들은 모든 연령의 사람들과 다양한 현대 스코틀랜드 문화를 포용하고 사회적, 교육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지역사회 기반 문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유네스코가 선정한 최초의 문학도시 에든버러는 18일 동안 700가지 이벤트가 열린다는 ‘에든버러 북 페스티벌’이나 스코틀랜드의 문학, 독서, 글쓰기를 진흥하는 북 트러스트의 여러 가지 혁신적인 프로그램 개발, 스토리텔링 센터의 스토리텔링 발굴 노력 등등 도시 곳곳에서 문학을 공기처럼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에든버러의 문학적 노력과 자긍심이 스코틀랜드의 민담을 소재로 한 소설 ‘해리포터’ 탄생의 기반은 아니었을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저력은 아니었을까? 스토리텔링 센터 바로 옆에 위치한 스코틀랜드 북 트러스트를 방문했을 때 조

앤 K. 롤링도 여러 차례 전문작가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적이 있다는 이야길 들었으니 결코 과장된 추론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나의 세계적인 문학 작품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에든버러처럼 세계적인 문학 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문학적 인프라와 예술생태계 독자 개발 등 다방면의 다양한 지원과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이상으로 유네스코가 선정한 문학 도시 두 곳 에든버러와 노르위치를 통해 살펴 본 세익스피어의 나라 영국은 문학적 유서가 깊고 유서가 깊은 만큼 자긍심이 높으며 높은 자긍심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학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다. 그 중 내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다방면의 다양한 지원 기관들이 영문학의 발전과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유연하게 연계하고 협업 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점을 벤치마킹하여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9개 기관 담당자들부터 한국 문학의 발전을 위해 한 발자국을 내딛는 건 어떨까 싶다.



영국문화원 사무실에서 내다본 런던 전경



마크 램버트, 스코틀랜드 북 트러스트 대표



영국문화원 스코틀랜드 사무실에서 만난  
유네스코 문학도시 에든버러 트러스트의 알리 보우든



스코틀랜드 스토리텔링 센터



더 리터러리 플랫폼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



사우스뱅크 센터 시문학 도서관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 FLY 브로셔

## 더 많은 교류를 위하여: 참여 기획자들의 대화

### 날짜

2013년 12월 10일

### 진행

김윤정: 주한영국문화원

### 참여자

김서정: 동화작가, 중앙대학교 강의교수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한국위원회 회장

여지인: 토지문화재단 학예사

안현미: 시인, 연희문학창작촌 실장

이정화: 대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과장

원미선: 프리랜서 문학 편집자

조은정: 파주북소리 조직위원회 마케팅 팀장

정지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문학 담당

###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기대했던 것과 성과

김서정 저는 개인적으로 아동문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아동문학이 전체 문학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며, 국내의 상황과 얼마나 다른지가 궁금했습니다. 실제 영국을 방문해보니, 아동문학이 일반 문학과 잘 섞여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초기 아동문학을 이끌어 오셨던 분들의 대다수가 영국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C.S. 루이스나 루이스 캐럴 작가만 봐도 동화작가 겸 옥스퍼드대학교 교수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잘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거의 없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국내 어린이 도서관이 많잖아요. 국립 어린이

이·청소년 도서관을 세우는 일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거든요. 영국을 방문해 보니 이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아동문학 전문 사서를 어떻게 키우는가를 물었더니, 모든 사서가 모든 책을 알아야 한다고 답했어요. 그러면서 일반 작가들이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글쓰기 작업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하는 방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문학을 일정한 방향 안에 가둬두기보다는 성인 문학과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 면에서 영국 방문은 기대 이상의 자극을 주었습니다.

이정화 프로그램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여유가 없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국을 다녀와 현장 업무를 하다 보니 곱씹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영국에서 경험한 것들과 비교하기도 하고, 그때 본 걸 업무에 적용해보면 어떻게라는 생각을 불쑥불쑥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번 방문에서 뜻밖의 인연이 있었어요. 팬 맥밀란 출판사의 마리아 편집장이 이정명 작가의 책이 마음에 들어 출간하기로 했고, 그 번역을 신경숙 작가의 책을 번역한 분한테 맡긴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연하게도 그 번역을 요청받은 분이 대산문화재단에 번역지원을 신청하셨던 김지영 씨였어요. 저희 재단은 번역지원과 출판지원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김지영 씨가 한국에 오셨을 때 그 번역서에 대한 출판지원 방향과 지속적인 교류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예기치 않은 성과였죠.

여지인 제가 속한 토지문화재단에 해외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작가 추천과 같은 구체적인 교류 방법을 기대했습니다. 문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나 출판계 동향도 살펴보고 싶었고, 문학행사를 어떻게 할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 전 자료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했고, 워낙 많은 곳을 방문하다 보니 마치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온 것 같은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돌아와 리포트를 쓰면서 다시 한 번 조사하니 프로그램 하나라도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정화 선생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많이 봤던 것들이 점차 일을 진행하면

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각 기관의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문화재단이 어떤 기관과 교류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 기관은 노르위치 작가 센터인데요.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였지만 저희 재단의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같지는 않아 기대했던 파트너십을 맺지는 못했지만, 2016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노르위치 국제 작가 센터에서 하려는 일들이 저희 센터의 프로그램들과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교류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방문은 제가 하는 일을 재정리하고, 알았던 것을 다시 한 번 교육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은정 페스티벌에 실제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어떤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영국 쪽 기관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기회 자체가 이번 프로그램의 성과라고 봅니다. 저는 파주북소리축제에서 일하기 때문에, 페스티벌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헤이 페스티벌이 그 국제적인 역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었고, 펀드레이징이나 관객 개발에 대한 노하우도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에든버러의 경우, 자연환경 자체가 문학 배경에서 튀어나온 듯한 도시이고 그들의 문학적인 자존심도 대화 도중에 많이 느껴졌어요. 에든버러와 파주 출판도시가 도시 간, 혹은 페스티벌 간의 교류를 통해 양국의 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이번 방문이 교류를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원미선 영국에 다녀와서 리포트를 쓰다 보니 왜 그와 같은 기관들을 방문하도록 일정이 잡혔는지가 읽히더라고요. 나무들을 하나하나 만나고 나서 그 산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본 셈인데요, 저한테는 이번 교류 프로그램이 '스스로 책읽기를 즐기는 독자층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북 트러스트부터 페스티벌 기획자들, 전자책 플랫폼 개발 기관까지 모두 평범한 사람들에게 독서와 문학적인 것을 즐기는 법을 알리기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온 느낌이에요.

안현미 사실 저는 시인으로 기존에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과 기획자로서 참여했던 이번 프로그램은 꽤 달랐던 것 같아요. 시인으로 가면 낭독하고 간단한 교류로 끝나는데, 이번에는 30곳이나 다니면서 느낀 점이 많았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기관 간에 협업이 잘 되어 있다는 점이었고. 영국에서도 물론 좋은 모습만 보여 줬겠지만 우리는 다른 기관과 뭔가를 하려면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현재 연희문학창작촌을 비롯해서 국내의 작가 레지던시를 운영하는 기관이 꽤 많이 생겨났는데 아직까지 서로 간의 네트워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지요.

#### 인상적이었던 영국 내 기관

원미선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글쓰기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페이버 앤 페이버 출판사였습니다. 전문 작가를 양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글을 즐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고를 수 있게 하기 위한 아카데미였는데, 결국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좋은 글을 찾는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걸 보았죠. 저는 잠재적 독자 혹은 작가들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느낌이 좋았어요. '시를 가지고 다녀요(Carry a Poem)'라는 캠페인도 국내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문학행사라는 것을 너무 진지하게만 바라보아서 그런 발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조은정 개인적으로 아동문학이나 청소년문학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지 않는 성인들에 대한 배려가 인상적이었어요. 킥 리드, 세계 책의 밤 같은 경우에 저자와 출판사, 그리고 독자들이 함께 동참해서 독서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에 대한 배려와 함께 읽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국내 상황에 맞춰서 발전시켜야겠지만, 세계 책의 밤은 파주북소리축제에서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영국과 국내 출판의 상황,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법에 대한 고민은 되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해요.

원미선 우리는 순수문학 출판이 갖는 한계나 문학 단행본들의 저조한 판매부수 앞에서 거의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와 소설을 즐기는 독자층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문학은 친근한 것이고 삶에 밀접한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노력을 더 많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의 경우, 아주 작은 기관도 멀리 보고, 지긋하게 작업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이번 영국 방문 후 독일에 잠깐 들렀을 때, «포커스»를 봤는데, 눈에 띄는 책 특집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크리스마스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가운데 1위가 현금이고 2위가 책이래요. (그 얘기를 돌아와서 몇몇에게 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제일 받기 싫어하는 선물이 책이라고 하네요.) 그 잡지에서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선물하기 좋은 책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서점들의 폐점이나 고급 문학서에 대한 무관심 등을 두고 우울한 이야기가 들리는 건 여기나 거기나 똑같지만, 독일에서는 문학서들이 살아갈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는 게 보였어요. 서점에 가보니 종이책들은 더 예뻐졌더라고요. 종이책이 존재하려면 손에 쥐고 싶도록 더 예뻐지는 방법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고본들은 더 앙증맞게 작아졌지만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잃지 않았고, 고전들도 주기적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어요. 제 느낌에 종이책을 포장하는 방식은 오히려 더 복고풍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읽히는 책들은 매번 다른 디자인의 스페셜 에디션으로 끝없이 재출간되는 거죠. 좋은 책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고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대가 다시 새롭게 읽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에디션을 고민해야 합니다.

김윤정 영국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즐거운 책 읽기 개념을 알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작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킷 리드의 캐시 란젠 브링크(Cathy Rentzenbrink)와 톰 팔머(Tom Palmer)를 초청해서 ‘즐거운 책 읽기: 리딩 바이어스’라는 강연을 열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운동을 해왔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말씀해주셨는데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감옥 수감자들에게 가서 책 읽기의 즐거움을 나누고, 글을 쓰게 하는 프로그

램이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강제가 아니라 독서와 글쓰기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이 좋았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톰 팔머의 ‘영국의 독자개발: 개관 및 사례 보고서’를 보면, 영국에서는 독자개발의 움직임이 1980년대에 도서관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즈음 도서관에서 성인의 대출 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운동이 시작되었고, 1990년대부터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기 시작하면서 독자개발이 급격하게 활발해졌다고 해요. 우리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지인 저는 영국의 독자개발이라는 시각이 너무 독특했어요. 박경리 선생님의 저서도 독자개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출판사 여건에서 보면 어려운 일이지만, 책을 다양하게 제본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고전이 계속 읽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고심해야 해요. 하지만 출판사에 이런 걸 요청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최근 박경리 선생님의 장편소설들을 최고의 디자인으로 새로 출판했지만, 책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 독자층에 한계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접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디자인이 좋다고 책이 잘 팔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젊은 독자층의 개발은 정말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은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이 많고 매우 잘 이루어지는데 한국의 경우 백일장이나 청소년 문학캠프에 학교 협조를 구해도 학교의 협조나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저조합니다. 입시가 중요하지, 글쓰기는 뒷전인 거죠. 학교와 뭔가를 긴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제를 교육기관과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학교와 북 트러스트 등 기관 간에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이 상당히 부러웠어요.

김서정 영국에서 돌아와서 방문 보고서를 쓸 때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더니, 2008년에 마이클 모퍼고라는 아동문학가 중심으로 150여 명의 영국의 문학계, 교육계 사람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패스트푸드, 컴퓨터 게임, 성적 위주의 학교 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국내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죠.

원미선 아이들이 책과 멀어지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인가 보네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지인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에 방문했을 때, 그 대학의 문예창작과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캠프에 참여한 학생 중 70%가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웠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궁금했어요.

안현미 공간운영은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을 관리하기 때문에 경상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지원인데요. 노르위치 작가 센터에 갔을 때 즉물적으로 그런 공간이 있을 줄 알았으나 없다는 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검색해 보니 관악구청 차원에서 에든버러 도시 전체를 벤치마킹해서 신림의 고시촌을 레지던시로 만들려고 한데요. 지금 고시촌은 고시생들이 떠나면서 슬럼화되고 빈공간이 많아져서, 창작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연희문학창작촌 쪽에 조연을 달라고 문의가 왔었는데, 작가들에게 30만원씩 관리비를 받아서 진행하면 운영이 되겠느냐 해서,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어쨌든 사회단체의 크라우드 펀딩과 구로구의 지원으로 구로 고시촌을 그렇게 만든다고 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좋았던 것은 실무진과 같이 다니면서 시인으로서 다니던 것보다 새로운 시야의 확장을 얻을 수 있던 점이고, 또 여러 기관들을 직접 가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하지만 일정이 빡빡해서 힘들긴 했어요.

원미선 그란타 갔을 때 만났던 젊은 편집자, 기억나세요?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 보였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북한 문학에 대해서 물어봤던 순간이 나중에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오히려 제삼자 같은 입장으로 부족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북한 작가들의 글을 읽을 기회도 없고,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아무튼 나중에 저는 조해진의 소설 «로기완을 만났다»가 떠올랐어요. 국내에서 탈북자를 소재로 쓰이는 소설들에 대한 이야기라도 그때 나누었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 해외의 편집자들과 이메일로라도 직접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해외도서 판권계약을 할 때 보통 에이전시의 소개를 통하거나, 현지에서 반응이 좋은 책을 선별해서 계약하는데, 이번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자 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이어진다면, 아쉽게 지나칠 만한 책들도 서로 소개할 기회가 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실무자들은 어디나 다들 바쁘긴 하잖아요. 담당자가 바뀌면 오래 쌓았던 교류가 순식간에 끊기기도 하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깊이 있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교류를 지속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더 다양한 한국 문학작품을 해외에 소개하기 위해서도 이런 교류들이 여러 차원에서 이어졌으면 합니다.

#### 더 나은 국내 문학·출판을 위한 의견들

김서정 작가들 태도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영국에서 'Writing Industry'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듯이, 문화도 산업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 조직 속에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고, 이 조직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쓰는 것 이외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골방에서 혼자 글 쓰는 것이 전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10월 영국문화원 초청으로 아동문학 작가 팀 보올러, 줄리아 골딩이 왔을 때, 제가 일하고 있는 KBBY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영국문화원과 함께 아동문학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대단했어요. 분명히 빡빡한 일정에 피곤했을 텐데, 그 시간 내내 정말 열정적이고, 친절하게 대답을 하고, 행사 중간 중간에 그리고 끝난 후에도 사람들에게 사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우리가 갖는 영국 아동문학 작가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산업 활동에 참여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여지인 북 트러스트의 청소년작가상은 3명의 청소년을 선정하여 유명한 작가와 함께 작업하고 출판사, 편집자들과도 만나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출판 과정도 배우게 하는 교육이 인상 깊었어요. 작가는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출판과 그 외 부수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해요. 얼마

전, 근대문학관에서 전시장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전시장보다는 작가가 작품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리고 보여주는지에 대한, 특히 인큐베이션 공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들이 실질적인 교육을 받는 북 트러스트의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대문학관에 그런 부분을 건의했어요.

안현미 한국 문학계는 모든 기준이 등단에 좌우되는데, 영국은 등단하고 상관없이, 아니 등단이라는 게 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인큐베이팅을 한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국내에서 문예창작과 전공생을 대상으로 등단에 상관 없이 뭔가를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지인 작가 인큐베이팅 사회적 기업 모델을 개발해서 참여할 수 있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정화 국내에선 모든 문학·출판 활동이 주류와 연결되지 않으면 일반인들의 주목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영국에서는 'Writing Industry'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작가가 전문인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 광범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특정 출판사의 출신으로 계파를 형성하지 않으면 작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독자들이 원하는 작가들은 매우 한정된 것 같아요.

김서정 등단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출판사를 통해서 등단하면 신예 작가로 인큐베이팅을 해주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책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일종의 공동체가 돼요. 각자 다른 공동체가 문학계 바탕을 다양하게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경쟁만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하긴 하는데, 문제는 서로 교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한 점만 보완된다면 한국의 등단 제도도 나름 독특한 제도일 수 있어요.

조은정 그리고 문학과 독서에 대한 영국 대중매체의 큰 관심이 부러웠어요. 물론 영국인들이 문학에 대해 보다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

도 하겠지만 한국에서는 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지윤 얼마 전, KBS에 하나 생기긴 했어요. 그런데 방송시간대가 시청을 많이 하지 않는 토요일 아침이에요. 영국 BBC의 경우, 외국 작가들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얼마 전에 고은 선생님 다큐멘터리를 촬영해 갔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초에 방송한다고 해요.

원미선 제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이나 정부 지원이 한꺼번에 이뤄지려면 교양이 높은 개개인들이 생겨야 하는 것 같아요. 시청률이 낮아도 책 프로그램은 꼭 있어야 한다거나, 작가들을 지원해야 한다거나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만 해요. 당장 눈앞의 이익이 없더라도 말이예요. 영국에서도 보면, 그게 무슨 이익을 낳느냐고 묻지 않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는 게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이 좋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교육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마인드를 넓혀야 할 거 같아요. 건강하고 좋은 소비자들이 있어야 기업도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든버러 문학 축제의 경우, 유명 작가의 이벤트에 관객이 몰리기 때문에 신인 작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좋은 시간대에 배치하는 기지 또는 배려를 발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작가 이벤트를 할 때, 정서상 그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사실 유명 작가들도 작가로서 후배 작가나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를 이런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작가가이기로 했으면 의무적으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같은 것들에 대한 인식도 필요해요.

김서정 아동문학에 그래서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자라서 성인 문학에도 영향을 주니까요.

김윤정 이번 한-영 문학·출판 교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가 한국의 출판사나 에이전시가 영국에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데 장벽을 느낀다

고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나운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관계자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서점에 가면 한국 문학 번역서가 거의 없어요. 영국에서 번역도서가 3%에 지나지 않지만 규모에 비하면 나름 큰 수치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한국 도서가 거의 없다는 거죠. 한-영 문학·출판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타계하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얘기를 나눠 보았으면 합니다.

김서정 영국의 아동문학은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 있지만 우리 아동문학은 영국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국에 알려야겠다는 생각도 거의 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이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 런던도서전을 계기로 해서 그림책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한국 아동문학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해외에서 상을 받은 작가들, 안테르센 상 후보 작가들 위주로 해서 홍보용 영상을 만들고, 최소한 책이라도 전시할 방법이 없을까 궁리 중이에요. 이게 완성되면 제가 영국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동영상도 보내보려고 해요. 버밍엄 문학축제 담당자 같은 경우 한국의 작가를 초청하고 싶다는 말도 했거든요. 자료 영상을 보면 흥미가 생기는 작가가 있겠지요. 그림책은 언어의 장벽이 없으니까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아동문학을 알려야지요. 이렇게 한 걸음씩 해보려고 해요.

원미선 영국 쪽 주요 작가들이 번역되는 건 영국문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 한국에 계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거꾸로 가려면, 한강 작가의 책을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한국 이름: 김보라) 씨 같은 분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책을 만들어보면, 문학 번역을 잘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100명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있다면 그 중에 한두 명 정도인 것 같아요. 김보라 씨 같은 분이 백 명 정도 있어야 어떠한 문학 작품을 번역하더라도, 영국에서 좋은 텍스트로 읽힐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국문학을 하려는 영국 현지의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레지던시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까 싶어요.

이정화 저희 대산문화재단에서 예전에 해외의 한국학 및 한국문학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아즈(SOAS,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한국학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안타까운 건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쯤 빛을 봐야 하는데,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어요. 저는 런던도서전을 앞두고 벌어지는 현상이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준비할 때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는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위원회까지 꾸려 진행했었어요. 그때와 다른 점은 런던도서전은 교류를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전후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반면, 독일은 우리 쪽에서 열심히 작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퍼주는 그런 인상이 있었어요. 도서전은 외형적으로 멋지게 포장되었고, 당시 저희가 준비했던 번역서도 최고의 독일 출판사에서 출판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무런 교류가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영국문화원에서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이 최소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는, 좀 더 깊이 있는 작업을 지속하기 위한 단초가 되었으면 해요. 독일과 같은 현상이 다시 벌어지지 않으려면 번역의 질도 함께 계속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미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은사님들이 다들 독일 유학을 다녀오셨는데, 그분들이 결국 한국의 친독 세력이 되셨고, 한국 문학에 영향을 주는 분들이 되셨어요. 그러한 분들이 나와서 독일 작품을 소개해야 그나마 독자들이 따라가요. 한국문학을 외국에 알리겠다고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관심이 생길 때만 그 사회에 수용되는 거잖아요. 그건 멀리 보고 계획해야 하는 일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적당한 인력이 생기기 힘들죠. 정부장학금이 많이 생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똑한 사람들을 더 많이 오게 해서 좋은 번역가부터 키워야죠.

## 방문 기관 및 일정

에든버러 / 2013.11.11

### 유네스코 문학도시 에든버러(UNESCO City of Literature Edinburgh)

[www.cityofliterature.com](http://www.cityofliterature.com)

세계 최초의 유네스코 문학도시로 선정된 에든버러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선도하며 문학과 문학 활동의 세계중심지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 에든버러 및 스코틀랜드 문학을 육성하고, 국제적 문학 파트너십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독립적인 기금단체이며, 다른 문학 및 독서 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매해 8월 에든버러 국제 도서 축제(Edinburgh International Book Festival)를 개최한다.

### 스코틀랜드 북 트러스트(Scottish Book Trust)

[www.scottishbooktrust.com](http://www.scottishbooktrust.com)

스코틀랜드 북 트러스트는 스코틀랜드예술위원회(Creative Scotland)의 기금 후원을 받아 스코틀랜드의 문학, 독서, 글쓰기를 진흥하는 기관이다. 전문 작가의 기술 개발 및 수상을 돕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의 읽기와 쓰기 능력 개발을 장려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 스코틀랜드 스토리텔링 센터(Scottish Storytelling Centre)

[www.scottishstorytellingcentre.co.uk](http://www.scottishstorytellingcentre.co.uk)

스코틀랜드 스토리텔링 센터는 연중 다양한 스토리텔링 이벤트와 연극, 음악, 전시, 워크숍, 전통예술행사 등을 운영하는 활기찬 예술 장소이다. 스코틀랜드 스토리텔링 포럼(Scottish Storytelling Forum)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방 자치 단체, 환경 단체, 지역 사회 센터, 도서관 등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스토리텔러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런던 / 2013.11.12~14

### 잉글랜드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www.artscouncil.org.uk](http://www.artscouncil.org.uk)

잉글랜드예술위원회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술과 문화 체험을 장려, 개발하고 투자하는 기관이다. 연극, 디지털 아트, 무용, 음악, 독서, 문학, 공예, 컬렉션 활동까지 다양한 범위의 예술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잉글랜드 지역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예술과 문화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영국 정부와 영국 복권으로부터 기금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 C21: 21세기 글쓰기 연구 센터(C21: Centre for Research in Twenty-First Century Writings)

<http://arts.brighton.ac.uk/research/c21>

전통적인 글쓰기 형식인 소설, 시, 희곡 등의 대안으로 거두한 21세기 글쓰기 방식과 출판 기술의 혁신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폭 넓은 네트워크 허브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독특한 연구 환경을 제공하며, 문학-출판 기관에 컨설턴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년 국제학술포럼도 개최한다.

### 팬 맥밀란(Pan Macmillan)

[www.panmacmillan.com](http://www.panmacmillan.com)

팬 맥밀란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크고 잘 알려진 국제적인 출판사로 알려져 있다. 맥밀란(Macmillan), 맨틀(Mantle), 팬(Pan), 피카도르(Picador), 박스트리(Boxtree), 시드윅 & 잭슨(Sidwick & Jackson), 벨로(Bello), 토르(Tor), 킹 피셔(Kingfisher), 맥밀란 어린이 도서(Macmillan Children's Books), 캠프벨 도서(Campbell Books), 맥밀란 뉴라이팅(Macmillan New Writing) 등의 임프린트와 맥밀란 디지털 오디오(Macmillan Digital Audio)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2010년 문을 연 맨틀은 2014년 한국 작가 이정명의 «별을 스치는 바람»의 번역서 출간을 앞두고 있다.

### 더 리터러리 플랫폼(The Literary Platform)

[www.theliteraryplatform.com](http://www.theliteraryplatform.com)

더 리터러리 플랫폼은 책과 기술의 교차점을 탐구하는 기관으로 개발자, 편집자 및 문학 관련 단체들이 성공적으로 디지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책과 기술의 핵심 작업을 돕는 전담 컨설팅 티엘피 콜렉티브(TLP Collective)를 운영하고 있다. 주 고객으로는 왕립문학협회(Royal Society of Literature), 영국독서연맹, 휴리스틱 미디어(Heuristic Media), 영국독서문학재단(National Literacy Trust), 팬 맥밀란, 페이버 & 페이버, 사이먼 & 슈스터 등이 있다. 교육 기관과 함께 출판기술의 영향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프로젝트도 다수 진행한다.

### 헤이 페스티벌(Hay Festival)

[www.hayfestival.com](http://www.hayfestival.com)

헤이 페스티벌은 영국의 헤이온와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열리는 축제로 저명 작가와 사상가, 영화 제작자, 역사학자와 소설가, 철학자, 환경 운동가, 시인 및 과학자들이 모여 이야기와 생각을 나눈다. 2013년 26회째를 맞이한 이 축제는 카르타헤나, 다카, 베이루트, 나이로비 등 매년 전 세계 열 개의 도시에서 동일한 이름의 축제를 개최한다.

### 버밍엄 문학 축제(Birmingham Literature Festival)

[www.birminghamliteraturefestival.org](http://www.birminghamliteraturefestival.org)

버밍엄 문학 축제는 15년 역사를 가진 축제로, 서점과의 협력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다양한 형태의 우수한 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 애플스 앤 스네이크스(Apples and Snakes)

[www.applesandsnakes.org.uk](http://www.applesandsnakes.org.uk)

애플스 앤 스네이크스는 1982년에 설립되었으며 매년 90회 이상의 시 퍼포먼스 행사와 670회 이상의 교육 워크숍을 열고, 신진과 중진 시인 모두를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런던 남쪽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영국 내 6개 지역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네트워크를 설립했다.

### 그란타(Granta)

[www.grantabooks.com](http://www.grantabooks.com)

[www.granta.com](http://www.granta.com)

그란타는 독립적이고 새로운 글쓰기를 대표하는 명성 있는 출판사이다. 문학과 비문학 작품을 출판할 뿐만 아니라, 기간지 <그란타>를 발간하고, 10년마다

20인의 주목할 만한 영국의 젊은 작가(Best of Young British Novelists)를 선발하기도 한다. 영국 최고의 문학상을 수상한 여러 작가의 책이 이 출판사를 통해 출판되었다는 것을 떠올리면, 이 출판사의 안목과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 사우스뱅크센터(Southbank Centre)

[www.southbankcentre.co.uk](http://www.southbankcentre.co.uk)

1951년 영국제(Festival of Britain)를 위해 지어진 사우스뱅크센터는, 복합문화예술센터로 모든 사람들이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예술에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센터 내에 시문학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문학 축제도 운영한다.

### 런던 도서전(The London Book Fair)

[www.londonbookfair.co.uk](http://www.londonbookfair.co.uk)

런던 도서전은 영국 런던에서 매년 4월경 사흘 동안 열리는 국제 도서전으로 가을에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과 함께 세계 주요 도서전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도서전에서는 출판, 오디오, TV, 영화, 디지털 채널 전반에 걸쳐 콘텐츠의 판권을 협상 및 판매하고 유통할 수 있는 장이 열리며 매해 111개국에서 약 25,000명의 비즈니스 전문가가 방문한다. 2014년 주빈국으로 한국이 선정되었다.

### 영국출판협회(Publishers Association)

[www.publishers.org.uk](http://www.publishers.org.uk)

영국출판협회는 영국의 책, 잡지, 오디오, 전자출판 등을 관장하는 무역 기구이다. 117개의 무역, 학술, 교육 분야 회사가 회원으로 등록되어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영국 도서업계 매출액의 약 80%를 차지하는 회원사의 저작권과 관권에 관한 대리업무, 로비 등에 관한 일이며 런던도서전의 오랜 협력기관이다.

### 영국독서연맹(The Reading Agency)

[www.readingagency.org.uk](http://www.readingagency.org.uk)

영국독서연맹은 2002년에 설립된 단체로, 기존의 독자개발 활동을 하던 단체인 런치패드(Launchpad), 더 리딩 파트너십(The Reading Partnership), 웰 워스 리딩(Well Worth Reading)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이 단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독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로 모든 사람에게 책과 독서에 동등한 접근을 제공하는 도서관과 함께 일한다.

#### 북 트러스트(Book Trust)

[www.booktrust.org.uk](http://www.booktrust.org.uk)

북 트러스트는 1992년에 설립된 독자개발기관으로 잉글랜드예술위원회와 각종 출판사들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단체의 목적은 각 개인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다양한 책 읽기와 글쓰기 활동에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여기에서 얻는 행복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 영국 도서관장 협회(Society of Chief Librarians)

[www.goscl.com](http://www.goscl.com)

영국 도서관장 협회는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소재한 도서관의 관장들로 이루어진 지역 정부 협회이다. 이 협회는 도서관의 역할과 미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역 주민이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공공도서관을 개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퀵 리드(Quick Reads)

[www.quickreads.org.uk](http://www.quickreads.org.uk)

퀵 리드는 책읽기에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 책을 두려워하는 성인들을 위해, 기존에 출판된 유명 저자의 책을 읽기 쉽게 재편집하여 출판하는 기관이다. 퀵 리드 책은 주요 오프라인 서점 및 온라인 서점을 통해 판매되고 도서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 세계 책의 밤(World Book Night)

[www.worldbooknight.org](http://www.worldbooknight.org)

세계 책의 날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끄는 축제를 만들어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세계 책의 밤은 책을 정기적으로 읽지 않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를 알리기 위한 축제이다. 이 행사는 셰익스피어가 태어나고 죽은 날이자, 세르반테스가 세상을 떠난 날인 동시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국제 책의 날(International Day of the Book)이기도 한 4월 23일에 매년 진행된다.

#### 페이퍼 앤 페이퍼(Faber & Faber)

[www.faber.co.uk](http://www.faber.co.uk)

페이퍼 앤 페이퍼는 런던에 마지막까지 남은 큰 독립 출판사 중 하나로, 이 출판사에서 출간한 도서가 노벨상을 12회, 부커상을 6회 수상했다. 많은 신간 도서와 계속 늘어나는 전자책 목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문형 출판인 페이퍼 파인즈(Faber Finds), 페이퍼 디지털(Faber Digital- iPad 앱), 페이퍼

아카데미(창의적인 글쓰기 학교) 등 새로운 벤처사업을 통해 영역을 점차 확장하고 있다.

#### 런던 리뷰 오브 북스(London Review of Books)

[www.lrb.co.uk](http://www.lrb.co.uk)

런던 리뷰 오브 북스는 1979년부터 영문학과 학술 에세이와 관련된 잡지를 출간하였으며, 현재는 런던 시내에 서점도 운영한다. 매 호는 학자, 작가, 기자들이 쓴 15개 정도의 긴 리뷰와 에세이를 수록하고 있다.

노르위치 / 2013.11.15

#### 유네스코 문학도시 노르위치(UNESCO City of Literature Norwich)

[www.unesco.org.uk/norwich](http://www.unesco.org.uk/norwich)

노르위치는 900년 역사를 가진 문학의 도시로, 훌륭한 작가들이 이곳의 역사를 문학예술로 변형시켰다. 오늘날에는 시인, 소설가, 전기작가, 극작가, 번역가, 문학 비평가, 사학자, 환경 운동가, 철학자들이 모이는 국제 문학 도시이다. 유네스코 문학도시는 노르위치 작가 센터(현재 노르위치의 유네스코 관리사무국)와 협력하여 작가들의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젊은 세대가 좀 더 즐겁고 새로운 방식으로 읽기와 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 기여한다.

####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 문학, 연극, 문예창작 학부 (University of East Anglia: School of Literature, Drama and Creative Writing)

[www.uea.ac.uk/literature](http://www.uea.ac.uk/literature)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의 문학, 연극, 문예창작 학부는 문학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오랜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명한 지식인들과 문학 작품, 희곡의 산실이기도 하다. 영국의 유명 작가 이언 매튜언이 이곳에서 공부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문학 이벤트를 진행한다.

#### 영국문학번역센터(British Centre for Literary Translation)

[www.bclt.org.uk](http://www.bclt.org.uk)

영국문학번역센터는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의 문학, 연극, 문예 창작 학부 소속이며, 동시에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 '국립 포트폴리오 기구(National Portfolio Organisation)' 중 하나이다. 훌륭한 외국 작품이 영어로 번역되어 읽힐 수 있도록, 번역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노르위치 작가 센터(Writers' Centre Norwich)

[www.writerscentrenorwich.org.uk](http://www.writerscentrenorwich.org.uk)

노르위치 작가 센터는 창의적 글쓰기와 그 사회적 영향력에 관심을 둔 문학 개발 기관으로, 작가, 독자와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및 국내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르위치 문학 축제에도 관여한다.

## 한·영 문학·출판 기획자 교류 프로그램

###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한영국문화원

### 진행

류재수, 정지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윤조, 김윤정 (주한영국문화원)  
Rebecca Hart, Ed Cottrell (영국문화원 런던 본부)

### 참여 문학·출판 기획자

김서정 (동화 작가, 중앙대학교 강의를수,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한국위원회 회장)  
여지인 (토지문화재단 학예사)  
안현미 (시인, 연희문학창작촌 실장)  
이정화 (대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과장)  
원미선 (프리랜서 문학 편집자)  
조은정 (파주북소리 조직위원회 마케팅 팀장)

### 영상

슈가숏트페퍼

### 자료집 편집

구정연, 이다영 (미디어버스)

### 디자인

김성구, 김홍



I	인사말	2
II	들어가는 말	4
III	영국 방문 리포트	
	<u>So Many Ways to Begin: 즐거운 독서 공동체를 향한 영국의 다양한 시도들</u>	6
	— 원미선	
	<u>아동문학의 경계를 넘어서</u>	14
	— 김서정	
	<u>풍부한 문학 자산의 토양, 그와 함께 하는 한국문학을 꿈꾸며</u>	20
	— 이정화	
	<u>영국의 유네스코 문학도시: 에든버러와 노르위치</u>	26
	— 여지인	
	<u>함께 즐거운 책 읽기</u>	34
	— 조은정	
	<u>셰익스피어의 나라 영국 방문기</u>	40
	— 안현미	
IV	더 많은 교류를 위하여: 참여 기획자들의 대화	48
V	방문 기관 및 일정	60